유럽 · 미국 '불교 수용사' 조망하다

동국대 인문硏 · 신라문화硏 '서구로 간 붓다' 학술대회

니체 · 베버 불교 인식 조명
염세주의 등으로 규정하거나
'지식인 구원론' 비판 제기
문헌학 · 시대적 한계 '분명'
美불교 세속화 문제점 지적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현대 서구사회에서 불교는 종교이자 수행법으로 자리잡았다. 유럽과 미국에 선센터에서 서구인들은 명상을 하며, 동남아시아의 선원에서 수행하는 서구인을 보는 것은 이제 낯선 풍경이 아니다. 서구사회가 어떻게 불교를 수용했는지를 논의하는 학술대회가 열렸다.

동국대 인문학연구소와 신라문화연구소는 10월 31일 동국대 경주캠퍼스 100주년기념관 5층 D501에서 '서구로 간 붓다'를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미국과 유럽권의 불교 수용사를 확인할 수 있는 논문들이 발표됐다. 김영진 동국대 불교학과 교수와 박용희 동국대 국사학과 교수는 니체와 막스 베버의 불교 인식을 통해 근대 유럽의 불교 인식을 살폈다.

김영진 교수는 니체의 저서 〈안티크리스트〉에서 나타난 니체의 불교 평가를 분석했다. 그에 따르면 니체는 불교를 기독교 비판의 도구로 사용했다. 종교를 비판했던 니체에게 불교와 기독교 모두 '데카당스(decadence, 타락)' 한 종교이지만, 그나마 불교에 대해서는 조금 호의적이었던 것은 불교를 통해 기독교를 비판할 수 있어서다.

니체가 접한 불교는 '초기불교'로, 그는 불교를 수백 년간 지속됐던 철학운동의 결과로 봤다. 이를 통해 니체는 불교를 '현실주의'이자 '현상론'이며, 선악을 규정 않는 '저편의 것'으로 인식했다.

김 교수는 "니체는 기독교는 '죄에 대한 싸움'을 설교하는 데 반해 불교는 '고(苦)에 대한 싸움'을 설교한다. 하나는 죄의 극복을 지향하고 다른 하나는 고의 극복을 지향하는 셈"이라면서 "니체는 바로 '죄'와 '고'에서 가상과 현실, 또는 형이상학과 실제의 대립을 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니체에게 불교는 '타락'한 종교였다. 니체는 힘을 향한 의지가 결여될 때 인간은 타락한다고 봤다. 인간 타락의 요소가 기독교에서는 '신'이며, 불교에서는 '염세주의'였다.

김 교수는 "더 센 힘을 원하는 니체에게 무욕의 평정을 원하는 불교는 저급한 게 아니라 한가해 보였을 것"이라며 "그가 말한 '현실도피적 불교'는 염세주의나 비관주의와 통한다"고 봤다.

불교의 최고 경지인 '해탈'에 대해서도 니체는 '도피'나 '황홀경' 정도로 인식했다. 김 교수는 "근대 유럽 학자들이 열반을 일종의 죽음 상태나 의지 제로 상태로 묘사했다"면서 "당시 신비주의적 해석들이 난무했는데 니체의 열반 이해도 이 같은 의심을 받을 만하다"고 말했다.

이어 "니체의 눈에 보인 불교는 대단히 제한적이었지만 이러한 이유에서 니체의 불교 평가는 상당히 독창적이고 참신하다"며 "그래서 그의 평가는 불교 자체를 폭넓게 이해하는 데 또 하나의 참조점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박용희 교수는 독일 불교수용사 내에서 막스 베버의 불교 인식을 살폈다. 베버가 보여준 불교 인식은 유럽사회와 비유럽사회의 차이를 보여주는 데 활용됐다. '경제적 합리주의'의 발현이 화두였던 베버는 고대-소승-대승불교로 이어지는 불교사에서 나타나는 특징으로 '지식인의 구원론'을 꼽았다. 불교는 "특권층이나 지식인의 구원론이라는 특성을 가졌고, 평신도에게는 구원의 길이 봉쇄돼 있었다는 것"이 베버의 불교 인식이라는 것이다.


니체 막스베버

박 교수는 "베버는 기독교의 경우 현실 거부가 도피로 연결되지 않고 관장이나 지배로 이어졌고, 이를 보여준 것이 칼뱅주의였음을 강조한다. 칼뱅주의는 서구 기독교 사회에서 작동한 경제적 합리주의를 낳았다는 것"이라면서 "하지만 비유럽사회에서 불교가 이와 필적할 만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게 베버가 밝힌 연구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베버는 초기불교를 넘어 세계종교로 발전한 불교를 연구대상으로 삼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발전을 이룬 불교의 문화적 측면을 밝히지 못했다"고 비판하며 "이는 당시 아시아 불교문화권에 대한 연구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던 시대적 한계에 따르는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권 불교 수용의 단면을 살핀 연구도 발표됐다. 김희영 대구한의대 교수는 '미국 선불교의 어제와 오늘'을 통해 미국 선불교 역사를 되짚었다. 그에 따르면 미국에 선불교가 소개된 것은 19세기 말이나 대중화된 시기는 1950년대다. 그 계기는 스즈키 다이세츠가 마련했고, 이후 시마노 에이도 · 스즈키 순류 · 쑤안 후아 · 틱낫한 선사 등이 미국서 선을 가르치며 미국에 선불교를 전했다.

1950~60년대 미국 선불교는 비트세대와 반문화운동 등으로부터 상당한 호응을 받고 성장하나 상당히 왜곡된 형태였다. 1980년대 선센터에 벌어진 추문들로 위기를 겪었으나 이는 개혁을 통한 민주주의 체제로 전환을 통해 극복했다. 이는 선의 미국화를 촉발하는 계기가 됐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미국 선불교의 특징을 △선센터 중심 △현지인 수행 지도 비중 증가 △사회참여 불교 지향으로 꼽았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미국 참여 선 수행은 프로테스탄티즘의 세속 지향성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결과"라면서 "참여선은 재가자 위주의 선 단체들이 수행과 삶의 조화를 이루기 위한 시도일 뿐 아니라 현실적 삶의 의미를 강조하는 미국 프로테스탄티즘 문화와 융합돼가는 미국불교의 단면"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 선불교운동이 불교를 현실 친화적으로 전환시켰지만 동시에 불교의 세속화를 초래했다"며 "이런 점에서 미국 선불교는 불교의 순수성을 파괴하고 종교의 도구화에 이르는 길을 열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最古 한글 필사 '능엄경' 보물 된다

문화재청 10월29일 지정예고
고양 원각사 성보博 소장본
가장 오래된 한글 필사 자료
'대승법계무차별론' 보물 지정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한글 손글씨 자료를 담은 능엄경이 보물로 지정된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대불정여래밀인수증요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 권1~2〉(사진, 이하 수능엄경)을 비롯해 조선 시대 도자기와 전적 3건에 대해 보물로 지정예고했다"고 10월 29일 밝혔다.

〈수능엄경〉은 대승불교에서 중요시하는 경전 중 하나로, 보물로 지정된 경전은 총 10권 중 권 1~2에 해당한다. 현재는 고양 원각사 성보박물관에 소장돼 있다.

원각사의 〈수능엄경〉은 태조 이성계가 승려 신종에게 대자(大字, 큰 글씨)로 판하본(板下本)을 쓰게 한 뒤 1401년(태종 1년)에 판각 · 간행한 것이다.

특히 원각사 〈수능엄경〉은 국문학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가진다. 경전의 여백에 붓으로 정교하게 쓴 한글과 한문 주석과 석독구결(釋讀口訣 · 우리말의 조사, 어미 등을 나타내는 토를 붙여 한문을 우리말로 풀어 읽는 방법을 표시한 것)이 빼곡히 담겨있기 때문이다. 특히 15세기 말까지만 쓰였던 ㅿ(반치음), ㆁ(옛이응) 등이 확인돼 눈길을 끌었다.

이는 지난 2015년 동국대 불교학술원 ABC사업단의 '불교기록문화유산 아카이브(ABC) 구축 사업'을 통해 확인됐다. 문화재청 역시 보물 지정예고에서 이 같은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조선의 독자적인 필체에 의한 판본으로서, 조선 초기 불경 간행의 양상을 살펴볼 수 있고 중세 국어 연구에 있어 귀중한 자료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문화재청은 조선시대 항아리인 '백자 청화매조죽문 항아리'와 풍수지리서 '지리전서동림조담'을 각각 보물로 지정예고했다.

이와함께 문화재청은 고려 말에서 조선 초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되는 〈재조본 대승법계무차별론〉을 보물 제2040호로 10월 31일 지정 공고했다. 신성민 기자

고성 옥천사 근현대 자료 디지털화

동국대 전자불전硏 · 옥천사 업무 협약 체결

고성 옥천사(주지 원각)에 소장된 근현대 기록 사진 등이 디지털화 된다.

동국대 불교학술원 전자불전문화콘텐츠연구소(소장 황순일, 이하 전자불전연구소)와 고성 옥천사는 10월 25일 옥천사성보박물관에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전자불전연구소가 진행중인 한국연구재단 토대연구지원 사업 '한국의 근대불교문화 사진 아카이브'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이에 따라 연구소는 옥천사성보박물관 소장 근현대 불교문화관련 기록사진의 디지털화를 추진한다.

협약에 따라 옥천사성보박물관은 박물관 수장고에 보관된 옥천사 사진자료와 옥천사 근대 고승관련 사진자료를 제공하게 된다.


고성 옥천사 주지 원각 스님(사진 오른쪽)과 황상준 동국대 전자불전문화콘텐츠연구소 연구초빙교수(사진 왼쪽)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전자불전연구소 토대연구팀은 한국불교 역사와 문화, 사상과 종교를 투영하고 있는 사진을 수집 및 분석하고 체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DB)화 하여, 다양한 키워드를 통한 검색 가능한 아카이브를 구축할 계획이다.

전자불전연구소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기존의 형성된 결과물과 연계해 근대불교를 조망할 수 있는 아카이브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동국대 불교학술원 제17회 불교인문학특강

11월 6일 문명대 교수 초청 강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석굴암의 원류를 확인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동국대 불교학술원(원장 정승석) 불교기록문화유산아카이브(ABC) 사업단은 오는 11월 6일 오후 3시 동국대 중앙도서관 전순표 세미나실에서 제17회 불교인문학특강을 개최한다.

'석굴암의 긴 여정- 간다에서 경주까지'를 주제로 열리는 이날 특강에는 문명대 동국대 미술학과 명예교수가 초청돼 강연을 진행한다.

이날 강연에서 문 명예교수는 석굴암과 같은 석굴사원의 원류를 조명한다. 문 명예교수는 인도의 엘로라 · 아잔타 석굴을 시작으로 중국 운강 · 용문 석굴에 이어 경주 석굴암에서 종착됐음을 설명할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동아시아 근세불교 어떻게 형성됐을까

동국대 불문연, 추계세미나

한 · 중 · 일 동아시아 삼국의 근세 불교를 비교 고찰하는 학술대회가 열린다.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HK연구단(단장 김종욱)은 11월 8일 오전 10시 동국대 다향관 세미나실에서 '동아시아 근세 불교전통의 형성'을 주제로 추계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학술세미나에서는 한 · 중 · 일 불교학자들이 각국의 근세불교를 고찰한 연구 논문을 발표한다.

한국에서는 김용태(동국대)의 '조선시대 불교와 국가의 길항관계', 손성필(한국고전번역원)의 '조선중기 사찰판 불교서적 간행의 역사적 의미'가 발표되며, 중국 측에서는 순궈주(정법대)의 '군신(君臣)과 사우(師友) 사이- 명 · 청 교체기 불교의 정치 담론'과 왕치원(복단대)의 '승속(僧俗) 소통의 시각에서 본 강남 불교단체- 초기 방책장(方冊藏) 판각을 중심으로'가 발표된다.

일본에서는 호자와 나오히데(일본대)의 '일본 근세 불교 교단을 둘러싼 여러 제도와 그 배경'과 히키노 교스케(동북대)의 '근세 일본에서의 상업출판 성립과 불교교단의 변용'이 발표된다.

학술 발표 이후에는 김종욱 동국대 불교문화원장을 좌장으로 '동아시아 근세 불교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주제로 종합토론을 진행한다.

신성민 기자

2019 가을개편

시대와 소통하고 세대와 공감하는

BTN 가을 개편

2019.10.07(월) ~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

10/10 첫 방송!

붓다인사이드
본 (목)13:00
재 (목)22:30,(일)13:00
스님 변호사 교수 네 명의 패널들이 펼치는 가감없는 유쾌 명쾌 상쾌한 신개념 불교시사 토크쇼

10/8 첫 방송!

명상, 세상을 보다
본 (화)13:00
재 (화)22:30,(일)09:30
세계적인 명상 거장들이 말하는 21세기 최고의 건강법, 명상에 대한 모든 것을 만나는 프로그램

10/9 첫 방송!

설화견문록
본 (수)09:30
재 (수)19:30,(일)06:30
우리가 미처 몰랐던 신비하고 다양한 불교설화를 찾아 전국 방방곡곡으로 떠난다. 글로벌 발굴단과 함께하는 불교설화 현장발굴스토리

10/10 첫 방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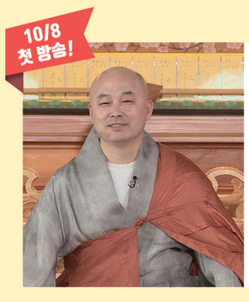
출가
본 (목)09:30
재 (목)19:30,(일)07:00
감히 쉽게 물어 볼 수 없었던 스님들의 출가이야기를 들어보고 한국불교의 밝은 미래를 발원하는 한국불교초심회복 프로그램

10/7 첫 방송!

천년의 여행
본 (월)09:30
재 (월)19:30,(금)19:30
1600년의 한국불교 역사와 스토리가 담겨있는 유.무형의 불교문화재를 고화질 영상유산으로 남기는 프로젝트.

10/9 첫 방송!

활안스님의 천태지자대사 선교관
본 (수)07:30
재 (수)16:00,(토)20:00
지자대사는 선(禪)과 교(敎)에 대해 어떻게 말할까? 활안스님의 열정적인 강의로 들어보는 천태지자대사의 선교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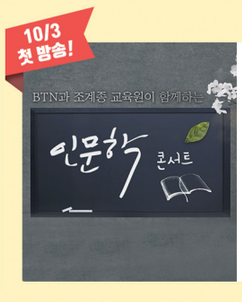
10/8 첫 방송!

행복나무에 핀 법화경 정혜선원 호연스님
본 (화)08:30
재 (화)17:00,(일)21:00
불교경전중의 제일(第一)경전이라고 불리는 법화경을 행복포교사 정혜선원 호연스님에게 배우는 기회.

10/7 첫 방송!

광우스님의 마음수행법회
본 (월,화,수)04:10
재 (목,금,토)06:30
광우스님의 새 강의가 선보인다. 불교수행의 총체인 지관(止觀) 좌선법에 대해 광우스님의 설명으로 쉽게 공부 할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10/9 첫 방송!


행복을 여는 열쇠, 명상
본 (수)13:00
재 (수)22:30,(금)15:00
명상에 대해 명성 있는 국내 명상가들이 총집합한 이번 프로그램은 각 명상에 대한 종류와 일상생활 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한다

10/3 첫 방송!


BTN과 조계종 교육원이 함께하는 인문학 콘서트
본 (월)14:00
재 (월)22:30,(토)07:30
불교와 인문학의 환상적인 만남 안에 담긴 재밌는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삶의 방향을 찾아본다.

BTN 붓다회 동참문의 1855-0108 | olleh 233번 | B tv 305번 | U+TV 275번 | skylife 181번 | 지역케이블문의:02.3270.3300